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6.12(금)

지부교섭 속보

05호

■발행처: 교육선전부 ■발행인: 김정태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 043-236-5077 ■http://dc.kmwu.kr

[5차 지부교섭_제시안 없음]

빈손 교섭 유감이다!

무더위 대책 절실하다

11일(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열린 5차 지부교섭은 최근 고열로 쓰러져 사망한 현대제철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50대 노동자가 43도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올해 무척 덥다고 한다. 지역에도 고열작업장이 많은데, 충분한 휴식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에게 무더위 대책을 특별히 강조했다. 더불어 김정태 지부장은 최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국 위기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제시안 없다?

제시안 없이 빈손으로 교섭에 참여한 사측 교섭 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각 회사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지부 요구안이 부담된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은 자금 상황과는 관계없다. 노조활동과 쟁의 시

노동3권 보장, 상급단체 공직 취임 인정, 감염병 보호, 지회 및 지부간부 회의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제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비용절감으로만 접근하면 경제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한계기업이 발생하는 문제는 지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 노사가 머리 맞대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사측은 계속해서 앓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위기 극복 방안은 머리를 맞대야 나온다!

사상 초유의 상황을 노사 모두 잘 알고 있다. 기존의 대응처럼 정리해고,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등의 방식은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위기도 극복하고 자본도 살 수 있다. 앵무새처럼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교섭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안을 찾는 교섭이 돼야 한다. 차기 교섭에서는 사측의 고민이 담긴 진정성있는 제시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5차 교섭 속기록

어려우니 자제하라고만 하면 답이 없다

노 :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고열로 쓰러져 사망했다. 작업장 온도가 43도였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공급이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 올해 무척 덥다고 한다. 지역에도 고열작업장이 많다. 그런 작업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몇배 늘었다고 한다. 대부분 작업 사업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이후 고통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먼저 가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잘돼야 자본도 발전하는 건데,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 거리로 내보내고 고용보험 받고, 재벌은 법인세 깎아달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위기 극복이 될지 모르겠다. 지역 기업들은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돼서 내쫓기는 순간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간다. 지난주까지 질의응답을 했는데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은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했는데 없다고 들었다. 왜 제시 못하는지 답변해주셔라.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질문 받겠다. 그래야 교섭이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사 :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자영업자 파산도 늘고 있다. 그나마 지부 사업장은 아직 그런 건 없지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부담이 있다. 조합도 어렵겠지만, 그 요구를 못들어주는 사용자도 어렵다. 고용이 불안하고 회사가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고 위기가 심화된다. 노사가 다른 접근방식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고용 안정되고 회사도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회사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은 더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부 요구안이 부담간다. 각 사별로 검토했으나 입장 차이 조율이 안돼서 제시안 마련을 못했다. 차기 교섭에서는 제출하겠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기업마다 좋지 않아서 어렵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노 : 제시안 없는 것에 상당히 유감이다. 작은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지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임금 빼고 나머지 요구안은 임금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한다. 과감히 회사가 수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6개 회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와 시장이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게 더 많지 않나? 누가 먼저 풀거냐는 문제가 남는다.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갈거냐? 지부교섭에서 해답이 나오기 어렵겠지만 고민할 지점은 있다. 노사 같이 머리 맞대고 정부에 요구할 필요도 있다. 기업이 어려우니 임금인상 자제하라고만 하면 답이 없다. 계속 대화해보자.

사 :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개인적으로 9월 이후 좋아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문가 의견은 가을에 더 큰 위기가 올거라고 한다. 모든 기업이 움츠러든다. 중소기업은 은행가도 대출도 어렵다. 그런 와중에 좋아질거란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자금 압박이 있어서 선뜻 못하는 걸 이해바란다. 임금요구안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정해진 걸로 이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힘들다. 임금인상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

노 : 수정할 생각은 안해봤다. 임금이 지회별로 내려가면, 경영조건과 생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